

|       |                |       |                        |
|-------|----------------|-------|------------------------|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일시 | 2022. 10. 26.(수)       |
| 담당 부서 | 해운물류국<br>해운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허만욱 (044-200-5710) |
|       |                | 담당자   | 서기관 전재훈 (044-200-5718) |

## 한·일 국제여객선 2년 반 만에 여객운송 재개

- 증가하는 여행수요에 대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10월 28일(금)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제한되어 있었다. 화물의 운송은 가능했지만 여객 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5일(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10월 28일(금)부터 한·일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하게 되었다.

부산항, 동해항과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시모노세키, 쓰시마, 마이즈루를 연결하는 국제여객항로가 재개된다. 다만, 일본 항만의 입출국 수속 준비로 본격적인 운항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11월 4일(금) 후쿠오카를 출항해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 운항계획이 잡혀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로 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을 비롯한 항만 인근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1월 5일(토)로 예정된 부산 불꽃축제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10일(수)부터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항 간의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하였고, 약 4천 명의 승객들이 이 노선을 이용하였다. 한중 여객항로의 경우 중국의 방역 대책으로 당분간은 여객운송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측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재개에 대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일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여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관련 사진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 국제여객선

